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8. 7.(월)

**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는 올해 6월 7일 언론보도 후
서울~양평 고속도로 인근 토지에 대해 처음 인지하고
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개략
거리를 파악했을 뿐입니다.**

< 보도 내용 (비즈니스, 8.4) >

◆ 원희룡 정말 몰랐나... 대통령 처가 땅 측정한 국토부 문서 입수

- 국토부 실무진 보고 문서, 6월 8일 작성... 남양평IC·강해IC와 대통령 처가 땅 사이 거리 명시

□ 해당 자료는 올해 6월 7일 유튜브 채널 의혹 제기 이후 담당 실무자가 처음 인지하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개략 거리를 파악한 자료입니다.

-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들은 6월 7일 더탐사 유튜브 방송 이후 서울~양평 고속도로 인근 김건희 여사家 해당 토지에 대해 처음 인지하였고,
- 6월 8일 해당 토지와 서울~양평 고속도로 양평군 내 나들목(IC) 거리를 설명하기 위해 실측이 아닌 포털사이트 지도로 개략 파악 후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도로국장까지 보고한 사항입니다.
- 이 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국토부 실무진에게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여 자료를 제공하였고 해당 자료가 언론보도에서 활용된 것입니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태석 (044-201-3875)
		담당자	서기관	이종현 (044-201-3904)